

## 사회적 가치와 무형자산\*

정광화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부교수

이상열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전공 교수

## Social Value and Intangible Assets

Kwang-Hwa Jeong<sup>a</sup>, Sang-Ryul Lee<sup>b</sup>, Yi-Bae Kim<sup>c</sup>

<sup>a</sup>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South Korea

<sup>c</sup>Department of Accounting, Duksung Women's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0, Revised 16 September 2020, Accepted 21 September 2020*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can b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in financial statemen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examined social values defined in the economic and management fields and analyzed whether the social valu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assets. For this, the general definition of social value wa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social value covered in previous studies. Next, we reviewed the definitions and recognition requirements for intangible assets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is, we tried to suggest new criteria and disclosure methods for reporting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that are not currently reported in financial statements as intangible asse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otes.

**Findings** - First, as a criterion for recognizing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 as an intangible asset, we propose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 and enterprise value. Where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they ar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If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business value, or the impact of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on the enterprise valu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not recognized as asset. Second, new disclosure plans are proposed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intangible assets by category and the relevance of enterprise value. After dividing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into separate intangible asset categories, if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they ar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f expenditur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business value, they should be recorded as essential notes. Finally, if the impact of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 on corporate valu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should be listed as a suppl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oncurrent research in that it is a priori study on whether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 can be recognized as an asse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conomic effect of social expenditure can be recognized in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thereby providing companies with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social value-related expenditure.

**Keywords:** Social Value, Intangible Assets Recognition in Financial Statements

**JEL Classifications:** G31, M41

\* 이 논문은 2019년도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로 연구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4083153).

<sup>a</sup> First Author, E-mail: jeong@kangwon.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berg7600@hanyang.ac.kr

<sup>c</sup> Co-Author, E-mail: kyibae@duksung.ac.kr

© 2020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기업의 가치는 보통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합으로 얘기되고 있다. 물론 기업의 본질과 지속 가능한 존속을 위해 기업은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한다. 이런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한계점이 노정되었고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특히 기업을 사회적 유기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기업의 존재가치와 활동이 사회와의 교호 및 소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기업들의 활동도 경제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탄생으로 촉발되었다고 본다. 기존의 기업들은 영리 추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SK그룹을 중심으로 사기업도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며, 사회적경제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는 그 용어에서 보듯이 “사회적”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 통일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가치 중 영리적인 측면인 경제적 가치의 측정과 평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추상적인 사회적 가치의 정의 정립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은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무형자산에 관련된 연구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 경영 분야에서 정의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사회적 가치가 무형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발표된 연구들에서 정의된 사회적 가치를 정리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의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을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각종 회계기준상의 규정을 검토한 후 해당 사항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재무제표 본문이나 혹은 주석 사항 등에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 기준과 공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를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무형자산에 관한 국내 회계기준상의 정의 및 인식요건에 관하여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재무제표 본문이나 혹은 주석 사항 등에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 기준과 공시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사회적 가치

### 1. 사회적 가치의 정의

일부에서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지만 일관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이배 등, 2017).

사회적 가치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정의하기는 어렵고 본질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정의해온 사회적 가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01614)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산성은 기업활동의 성과 내지 능력을 측정·평가하고 성과내지 능력의 발생원인과 성과배분의 합리성 등을 분석하는데 기준이 된다.

기업은 할당된 노동과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도입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향상된 생산성은 기업의 잠재성장력과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인다.

생산성이 제고될수록 비교적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기업 전체 생산원가는 더 낮아지게 되고 기업의 부가가치(수익)는 더욱 증가된다. 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증가된 부가가치(수익)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 더 큰 부가가치 창출로 인해 더욱 많은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1) 김이배 등(2017)

김이배 등(2017)은 사회적 가치를 “기업이 주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공익적 결과”라고 정의한다.

### 2) 라준영 등(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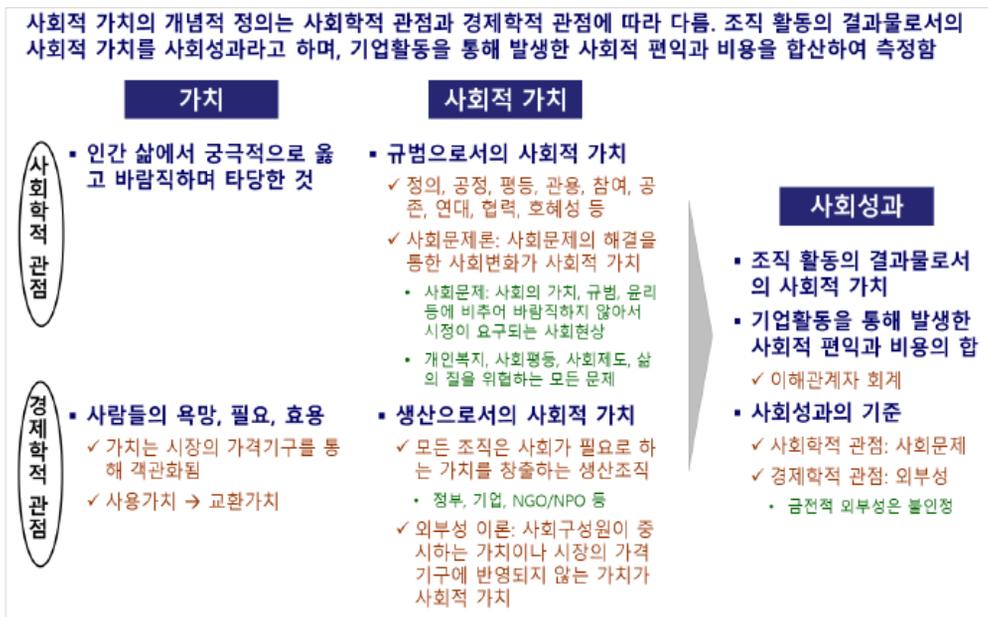
라준영 등(2018)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를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가치를 목표지향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정의, 공정, 평등, 관용 등과 같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들을 강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학에서 이해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반면에,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욕망, 필요, 효용과 같은 수요(demand)를 가치로 설정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

1)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001614)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본 법률안은 현재 국회계류 중이다.

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조직들(정부, 기업 등)이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공급 체계는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희소한 자원의 가장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만능이 아니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가치로 이해한다.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가치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된다(라준영 등, 2018).

Fig. 1.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라준영, 2018)



출처: 라준영(2018)

### 3) 배종태(2018)

배종태(2018)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치”로 정의하고, 경제적 가치를 제외한 해당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부분을 사회적 가치 측정 대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시장가격으로 표현 가능한 가치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 4) 한국행정학회(2019)

한국행정학회(2019)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는 <Table 1>에 나와 있다. 연구자별로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주로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달성되는 안정성이나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윤리성 등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Table 1.**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정의

연구자	정의
강순화(2016)	타인과 공동체의 구성원 및 공동체를 고려하는 것
김순영(2008)	사회적 목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수익의 재투자
김정인(2013)	EMES: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참여도, 민주적 의사결정, 취약계층 고용, 이윤분배 제한
김정인(2018)	지속가능성, 안전성, 사회적 형평성, 보장성, 공동체주의, 공유성, 윤리성
박상하(2009)	정책이나 자원이 개인이나 사회에 개선을 가져올 때 생성되는 가치
신용석(2010)	EMES: 지역사회 이익추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자본소유에 따르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의 참여확대, 제한적인 이윤배분의 항목
진희선(2013)	삶의질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 방향으로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는 것
최은정·김수현(2013)	사회적 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내재된 가치

출처: 한국행정학회(2019)

한국행정학회(2019)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회적 가치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2>에 나와 있다. 한국행정학회의 보고서(2019)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주어진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위치해 있는 각각의 공동체들(공동체의 구성 요소)의 실천 영역에서 담론윤리에 기초한 민주적 정치과정과 정치적 공론 영역을 통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존재 상태인 안녕(공동선)과 내적인 관계에 있는 인권, 안전, 건강·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지원, 상생협력, 공동체복원, 지역경제, 책임윤리, 환경, 참여 등을 구현하는 가치”라고 정의하였다(한국행정학회, 2019).

**Table 2.** 사회적 가치의 조작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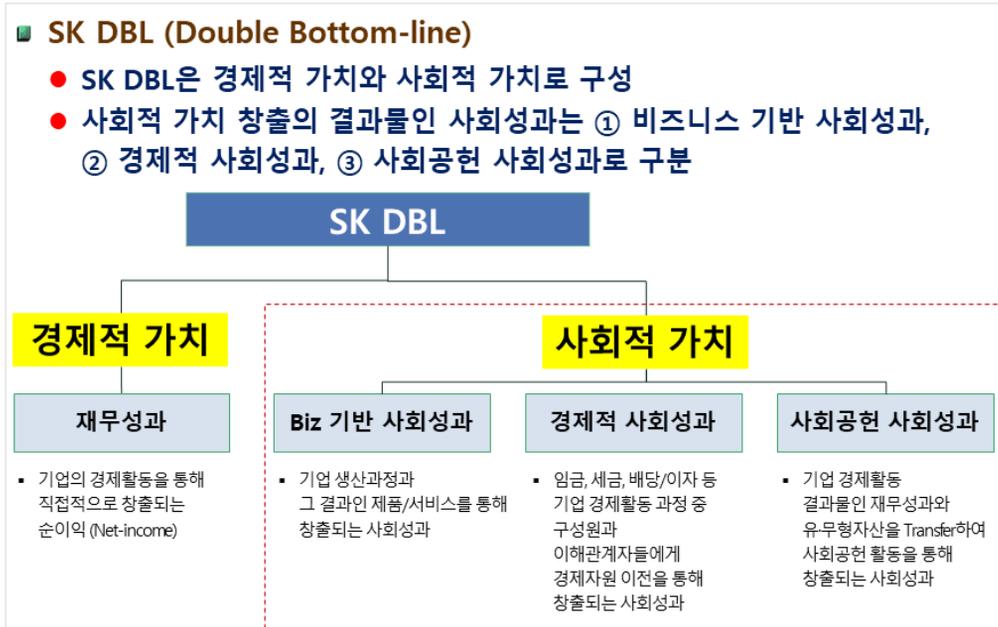
연구자	조작적 정의
강순화(2016)	공동체역의식, 총족감,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김덕호·정문기(2017)	지역사회 기여, 봉사활동 참여, 공익단체 기부, 공동체 이익 증진
김숙연(2016)	경실련: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만족,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환경경영
박미옥(2005)	순응성, 분배적 정의, 사회갈등 허용도
박범우(2017)	Alder and Kwon(2002): 네트워크 활성화와 상호 서비스정신
박상하(2009) 박상하·김종원·박정식(2009)	EMES: 시민사회 주도,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사회적 이윤분배, 지역사회 공헌, 공익목표
이승현·박성연(2015)	공익의 중요성, 관련성, 의미, 가치, 관심
이용택(2011)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명감이나 사회공헌도 증진
이형재·류선호(2012)	약자 보호, 사회공헌, 친환경
장우진·오승석·배철호(2012)	지역사회 봉사, 지역주민 행복추구
정대용·김민석(2010)	EMES: 시민사회 주도,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사회적 이윤분배, 지역사회 공헌, 공익목표
정영호·노대명·고숙자(2005)	CVM: 존재가치
정영호 외(2006)	CVM: 경제성
최용부·김진현·민병익(2002)	여행비용접근법과 만족가치접근법: 사용가치, 선택가치
최은정·김수현(2013)	환경친화, 사회공생, 사회공헌, 종업원 복지

출처: 한국행정학회(2019)

### 5) SK그룹

SK그룹에서 밝히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기업 경영활동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회성과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sup>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결과물인 사회성과는 비즈니스 기반 사회성과, 경제적 사회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로 구분한다.

Fig. 2.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체계



출처: SK그룹 자료, 배종태(2018)

## 2. 사회성과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 또는 사회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홈페이지에서 “사회가치 측정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 즉, “조직이 우선적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 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 2) 라준영 등(2018)

‘사회성과’는 조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무성과’를 회계적으

2) SK사회공헌위원회 자료; 배종태, 김재구(2019), 사회가치창출과 사회가치경영, 기경원 좋은경영연구소 오픈세미나 자료집

로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사회성과는 기업 활동에 따른 편익과 비용(cost and benefit)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성과에 대한 기준으로 (1)사회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2)경제적 관점에서 측정가능해야 하며 (3)시장의 가격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여야 한다.(라준영 등, 2018).

### 3. 사회적 가치와 사회성과

사회성과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말한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구분된다(김이배 등, 2017).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궁극적으로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는 이윤추구와 무관하다. 경제적 가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한 결과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이다(김이배 등, 2017).

“사회성과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따라 크게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으로 구분할 수 있다”(Wholey, 1979). 이중에서도 ‘사회적 영향’은 사회성과로 인한 사회의 궁극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사회적 영향은 중장기적인 결과로서 단기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에 따라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기여분을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sup>3)</sup> ‘결과’ 위주의 측정을 통해 개별조직의 사회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만약 결과의 측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산출, 과정, 투입 순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많다(라준영 등, 2018).

### 4.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지금까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은 크게 비용-효과 분석모델, 비용-편익 분석모델, IRIS 유형의 평가모델로 구분된다.

**Table 3.**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비용-효과 분석모델 (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편익 분석모델 (Cost-Benefit Analysis)	IRIS 유형의 평가모델 (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사용</li> <li>● 결과(영향력)에 따른 상대적 효과성에 근거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동일 분야내의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li> <li>● 예: 1,000달러당 10건의 응급실 방문방지 효과, 1,000달러당 0.5년의 수명연장 효과 등 화폐가 아닌 자연단위의 효과로 표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광범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li> <li>● 사회적 가치를 타당하고 신뢰성있게 화폐화할 경우 매우 이상적인 사회가치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li> <li>● 예 : A사는 1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여 1.5억 달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미션지향적인 조직의 사회적·환경적·재무적 성과를 보고하는 공시에 적합한 지표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음</li> <li>● 다양한 센터들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표로써, 범용색터와 8개 세부색터로 구분하고 5개 범주별로 상세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큐먼펀드의 BACOB비용</li> <li>● 휴렛재단의 기대수익</li> <li>● CHIP의 영향력당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DF의 SROI, 영국 nef, The SROI Network</li> <li>● 로빈후드재단의 비용-편익비용</li> <li>● KAIST 사회책임경영센터(2010)</li> <li>● 이승규, 라준영(2010)</li> <li>● 사회적기업연구원(2011)</li> <li>● 한밭대 산학협력단(2012)</li> <li>● SK 행복나눔재단(20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록펠러재단</li> <li>● 어큐먼펀드</li> <li>● GIIN</li> <li>● 김순양(2008)</li> <li>● 이용탁(2008)</li> <l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 '14)</li> </ul>

출처 : 이은수(2015)

3)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의 개발 및 적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행복나눔재단이 주도하였다.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된 이후의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은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을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모델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IRIS 유형의 평가모델인 사회적 성과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입장에서는 민간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알릴 필요성이 크며, 이에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 및 지표개발 등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사회적 기업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이은수, 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김이배 등, 2018). 즉, 지원, 감독 기관 입장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수준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지원사업 선정 시에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직접적으로 활용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김이배 등, 2018).

이에 반하여 지원, 양성기관 입장인 SK그룹의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존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중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SROI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와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사회적 투자자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투자의 사회적 영향 파악, 책임성(accountability) 평가, 사회적 투자위험과 투자수익 등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 평가, 사회적 자본 시장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인 사회적 가치 측정이 포함된다(김이배 등, 2018).

### III.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요건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sup>4)</sup>

##### 1) 무형자산의 정의

K-IFRS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그 인식조건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가 그것이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취득에 따르는 지출이나 내부적으로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영업권은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업권과 구별된다.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행한다면 식별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의미는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이전가능 여부나 분리가능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자원에 대한 통제는 기업이 대상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배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미래경제적효익을 향유하고, 제3자는 그러한 효익에 접근불가능해야만 특

4) 본 내용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 기업이 특정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통제능력은 법적 권리에서 나오는데, 이는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권리가 없다면 자원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sup>5)</sup> 예를 들어,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등은 통제 요건을 만족하지만, 종업원의 숙련도나 교육훈련,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 논리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도 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법적 권리 등)이 없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데 이는 교환거래 자체가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 매출, 용역수익 등과 같은 수익의 증가나 원가절감 등과 같은 비용의 감소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미래경제적효익과 동일하다.

## 2)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특정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뿐만 아니라 인식기준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최초 취득원가는 물론 취득·완성 이후 발생하는 후속원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증설·개량 및 대체와 같은 유형자산의 후속원가와와는 달리 무형자산의 후속원가는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무형자산의 특성상 대부분의 후속원가는 기존의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형자산의 후속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21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으로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이미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유입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은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증거들은 내부 증거보다는 외부 증거에 더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은 원가로 측정하는데,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적 가치 관련 무형자산은 특허권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성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은 문단 51~67에 다루고 있는데, (1)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원가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형자산 내부창출에 사용된 원가와 내부창출 영업권에 사용된 원가, 통상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위해 사용된 원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K-IFRS는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sup>6)</sup> 연구(또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자산성을 부인하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연구단계에서는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또는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여섯 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단 57).

5) 하지만 법적 권리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적 권리가 통제에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6)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연구단계에 비해 개발단계에서는 관련 활동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와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을 입증하기 수월하다. 다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특정 항목들(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는 그러한 항목들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문단 63과 64).

## 2.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 요건을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 점이나,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양 기준이 동일하다. 하지만,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에서 K-IFRS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을 요구한다.

그 외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식별가능성에 대한 독자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단 11.4는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와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즉, 일괄취득한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가능하며, 특정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K-IFRS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기 내용을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은, 비록 상당부분 간소화되어있기는 하나,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 IV. 사회적 가치와 무형자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사회적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무형자산에 관한 현행의 국내 및 국제회계기준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 및 사회적 가치의 공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사회적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 1) '경제적 효익'의 정의

회계기준에서는 어떠한 지출이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용어를 '미래 현금흐름 창출 능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미래 현금흐름 창출 능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자산성이 있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규나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비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는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을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설비 투자는 자산성이 없으므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설비 투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며, 이러한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은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써 자본시장의 투자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설비 투자는 그 자체가 현금흐름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효익이 있으므로 자산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환경설비 투자는 재무제표 본문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무형자산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통해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그 중요성(크기)과 발생가능성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차별적으로 기업가치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자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경제적 효익'의 측정

무형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은 무형자산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부 무형자산(내부창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측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무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산의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추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정 지출의 자산 인식 여부는 회계기준에 근거한 사전적이고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사후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어떠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후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해당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아래 <Table 4>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토빈Q 혹은 규모조정 비정상누적수익률(SAR)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다. 통제변수는 독립변수 이외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 성장성, 규모, 부채비율 등으로 설정한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산성을 인정해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오히려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므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한다.

**Table 4.** 사회적 가치의 무형자산 인식기준

구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종속변수	토빈Q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당기 비용처리
	비정상상누적수익률 (SAR)			
독립변수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			
기타 통제변수	현금흐름 (+), 성장성(+), 규모(+), 부채비율(-)			

## 2.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Barth, Kasznik and McNichols (2001), Barron, Kile and Riedl (2002) 등은 무형자산 회계정보는 다른 계정과목에 비해서 내부 및 외부 정보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공시 방법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Lev and Zarowin (1999), Collins, Maydew and Weiss (1997), 그리고 Francis and Schipper (2000) 등은 무형자산에 관한 불명확한 정의 및 불충분한 분류 체계 등으로 인해서 무형자산의 회계정보 유용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성표 등(2006)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형자산 공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형자산 회계정보 공시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제한된 종류의 무형자산을 단순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시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개선방안으로서 무형자산의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보다는 국제 및 미국기준에서와 같이 범주식으로 무형자산을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형자산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원가 이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화폐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 공시사항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국내 및 국제회계기준의 공시 규정과는 별도로 보고되던 지식자산표를 회계공시모형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무형자산의 보다 효과적인 공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형자산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성표 등(2006)에서 적용했던 1차원 분류 체계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추가하여 7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조성표 등(2006)에서 적용했던 2차원 분류 체계(식별 및 측정가능성) 대신에 기업가치 관련성을 수정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래 <Table 5>와 같이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공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재무제표 본문에 화폐단위 금액으로 측정하여 무형자산으로 보고한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하고 필수적 주식사항으로 기재하며 화폐단위 혹은 기타 지표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하고 보충적 공시사항으로 기재하며 화폐단위 혹은 기타 지표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Table 5.** 사회적 가치의 공시

구분	기업가치 관련성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범주 분류	시장기준	상표, 인터넷 도메인, 기업심볼, 기업유니폼	
	고객기준	고객계약서, 주문잔고, 고객명부, 고객관계, 비계약적 유대관계	
	예술기준	서적 잡지 신문 및 기타 문학작품, 그림, 사진, 비디오, 연극 오페라 및 발레	
	계약기준	라이선스, 로열티 및 유지보수 협약, 광고, 건설 관리 용역 또는 공급계약, 리스계약, 공사허가, 프랜차이즈 계약, 운영	
	기술기준	특허기술,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배치설계, 특허 받지 않은 기술, 데이터베이스, 비밀공식 조리법과 같은 영업비밀	
	영업권	외부에서 구입된 영업권	
	사회적 가치 기준	공익단체 기부, 사회공헌, 이해관계자 만족,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환경경영, 지역사회 공헌 등	
인식 방법	무형자산 인식	당기 비용처리	당기 비용처리
공시 방법	재무제표 본문	주식사항 (필수적 기재)	보충적 공시
측정 방법	화폐 금액	화폐 금액, 지표 등	

출처: 조성표 등(2006) 수정

## V. 결론 및 시사점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 및 지식산업 기반으로 진화함에 따라, 무형자산이 기업가치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재무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노력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정보들이 나열식으로 산재되어 있어 정보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제공받기 어렵고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정도진 등, 2019). 또한, 재무분야에서도 현행 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형자산 인식 기준에 따르면, 기업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제표 본문에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브랜드, 고객관계, 특허기술, 지식재산권,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계기준에서는 토지나 설비,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위주로 자산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재무제표 본문이나 혹은 주식 사항 등에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 기준과 공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와 유의성에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당기 비용처리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공시방안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무형자산을 보고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형자산을 범주로 구분한다. 2차적으로 무형자산 범주 중의 하나로 분류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부호와 유의성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에 대한 공시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을 재무제표 본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수적 주석사항으로 기록하며,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한다.

이상의 제안은 현행 회계개념과 회계기준체계 하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미래의 회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이상의 제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사회와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시대, VUCA시대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적 가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재무제표 인식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회계에서는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제일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가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해관계자들 간에 일반적인 합의(consensus)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만 다음 단계로 사회적 가치의 인식, 측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종적인 보고서는 재무제표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은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회계개념 및 회계기준 하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는 이상적이지만, 사회적 가치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이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에 세제혜택, 보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상의 근거로 사회적 가치 정의, 인식, 측정에 관한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원칙의 정립에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leading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following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이 원칙은 회계개념체계하의 사회적 가치 정의, 인식, 측정, 표시와 작성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회계개념과 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가칭)New 개념체계 및 회계기준 또는 (가칭)사회성과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기준서의 제정 및 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무형자산의 범주별 구분 및 기업가치 관련성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공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제공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 관련 지출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추정과 불확실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의 자산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김이배, 전규안, 박상형 (2017년 11월), “사회성과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개정안”, SK텔레콤주식회사 연구보고서.
- 김이배, 정도진, 전규안 (2018년 5월 8일), 사회적 가치, 재무제표에 담을 수 있는가?,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
- 라준영, 김수진, 박성훈 (2018),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측정: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환산”, *사회적기업연구*, 11(2), 131-161.
- 라준영 (2018년 8월 28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브릿지 협동조합 Archive, Available from <http://www.bridgecoop.kr/ab-1379-28> (accessed August 16, 2020)
- 배종태 (2018년 4월 21일),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측정, 2018 *한국인사조직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
- 배종태, 김재구 (2019년 2월 16일), 사회가치창출과 사회가치경영, *기경원 좋은경영연구소 오픈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
- 이은수 (2015년 5월 29일), 사회가치 기본지표(BISV: basic index of social value)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적 경제 통합학술대회 2015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
- 정도진, 박성환, 김종현, 강평경, 정아름 (2019년 8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KAI)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
- 조성표, 안홍복, 권기정 (2006), “무형자산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회계공시모형의 제안”, *회계저널*, 15(4), 69-9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보도자료 (2017년 7월 7일),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SVI)」로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eis.or.kr/seisvm/self/step.do> (accessed August 16, 2020).
- 한국행정학회 (2019),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에 관한 연구”, *SK 사회공헌위원회, 행복나눔재단 연구보고서*.
- Barron, O., D. Byard, C. Kile and E. Riedl (2002), “High-Technology Intangibles and Analysts’ Forecas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2), 289-312.
- Barth, M. E., R. Kaznik and M. F. McNichol (2001), “Analyst Coverage and Intangible Asse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1-34.
- Collins, D., E. Maydew and I. Weiss (1997), “Changes in the Value-Relevance of Earnings and Book Values Over the Past For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December), 39-68.
- Francis, J. and K. Schipper (2000), “Have Accounting Statements Lost Their Relev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2), 319-352.
- Lev B. and P. Zarowin (1999),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te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107-138.
- Wholey, J. S. (1979), *Evaluation: Promise and Performanc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Bilinski, P. (2014), “Do Analysts Disclose Cash Flow Forecasts with Earnings Estimates When Earnings